

의안검토보고서

1. 발의 또는 제출자 : 대전광역시교육감
2. 건명 :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
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3. 안건요지 : 불임참조
4. 검토의견 : 불임참조

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불임과 같이 보고합니다.

2009년 2월 10일

교육사회위원회
전문위원 권태환

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이 조례안은 2009년 1월 13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2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1. 제안이유

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및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·시행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규정을 개정하기 위함.

2. 주요내용

가.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사항 일부 조정함(안 제6조).

- 공정이 50퍼센트 이상 된 건물, 기타 시설물의 확정에 대한 사항은 복식 부기제도의 도입에 따라 공사 수행에 대한 기성 지급이 자산의 취득으로 처리되므로 심의 대상에서 제외됨.
- 교육감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립학교에 학생과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 가능한 문화 및 복지시설, 생활체육시설 등의 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설치여부를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대상에 추가함.

나.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에 인용된 조항을 정비함(안 제29조).

다. 사용·대부료의 인상금액에 대한 감액 조정함(안 제36조).

- 시행령 제16조 및 제34조의 사용료·대부료 등의 인상금액에 대한 조정 한도가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70으로 완화됨에 따라 대부료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서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감액 조정비율을 70%까지 확대

3. 검토의견

본 개정 조례안은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이 개정·시행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 및 다른 법령의 인용조문을 개정하려는 사항으로,

주요 내용은

- 안 제6조중 제1항 제2호를 삭제하고, “제5호”는 “제6호”로 하고, 제5호에 “교육감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립학교에 학생과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 가능한 문화 및 복지시설, 생활체육시설 등 복합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”을 신설하였으며,
- 안 제29조 제2호중 “지방산업단지”를 “일반산업단지”로,
- 안 제36조 제1호중 “100분의 50”을 “100분의 70”으로, 제2호중 “100분의 45”를 “100분의 65”로, 제3호중 “100분의 40”을 “100분의 60”으로 하고,
- 부칙 제2조에는 “사용료 및 대부료의 조정에 대한 적용례”에 관한 규정을 두었음.

조례안을 검토한 결과

-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이 2008. 4. 18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내용을 반영하고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일부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사항으로,

- 이는, 건설중인 공유재산의 범위를 재설정 한 것으로, 현행 규정은 지급된 기성금액의 처리가 복식부기 제도와 서로 달라 업무추진의 혼선과 별도의 심의로 인하여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가 우려되어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절차를 생략코자 하는 사항으로, 업무의 일관성 및 행정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판단됨.
- 또한, 공립학교 내에 주민을 위한 문화 및 복지시설, 생활 체육시설 등의 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, 주민의 편의가 증진되고 시설운영상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, 사용료 및 대부료의 감액 조정율을 일률적으로 각각 20%씩 확대하여 서민의 부담을 경감시킨 사항으로 이는, 상위법의 개정과 관련된 사항이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보아짐.
- 다만, 감액 조정율을 일률적으로 각각 20%씩 확대 조정함에 따라 지방재정 수입금액의 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의 마련 등 좀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.